

## 말라기 강해 (3)

## 레위의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말라기 2:1-9

어떤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였는데 포장을 열었을 때에 흠이 많은 것이라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받은 선물이 흠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다면 선물을 한 사람에게 항의할 것입니다. 혹시 두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은 모욕적인 선물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은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면, 셋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선물을 준비한 사람, 전달한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의 세 관계가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말라기는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1:6-2:9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흠친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져왔고, 제사장들은 그러한 제물을 그냥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제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호와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가져온 백성과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려고 말라기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과 제사장과 여호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2:9에서는 세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1:6에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잘못을 각각 지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1:11, 14). 그리고 2장에서는 ‘나의 이름’을 2절과 5절에서 사용합니다. 둘째는 ‘영광/공경’과 ‘경외/두려움’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1:6)하고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합니다. 2:2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5절에서는 경외/두려워함에 관하여 말합니다. 셋째 단어는 ‘언약’입니다. 특히 2장에서 ‘나의 언약,’ ‘레위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과 경외함,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과 맺은 언약 - 이러한 표현들을 읽을 때에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영광’과 ‘언약’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출애굽의 장면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알려 주시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몰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실 정도로 진노하셨으나, 모세가 조상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백성을 향하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경고하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 그리고 레위와 맺으신 그분의 언약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다시 세워 주시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뜻이 없으시다면 제사를 부정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내시되,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언약의 용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의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고, 결론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묵

상하겠습니다.

1.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 (1-4절)
2.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5-7절)
3. 레위의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8-9절)
4. 온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와 우리의 태도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중간 부분에는 레위와 맺은 언약의 복됨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책망의 근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이름, 영광, 언약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도 알려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도 새롭게 되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 1.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 (1-4절)

- 1 그러나 이제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 2 “너희가 듣지 않고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중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너희의 복에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복에 **저주**를 내렸다.
- 3 내가 너희를 거슬러<sup>1)</sup> 너희 후손을 꾸짖으며  
 내장에 든 오물을,  
 절기 제물의 내장 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너희는 그것과 함께 버려질 것이다.<sup>2)</sup>
- 4 그러면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계속 있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보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부르시면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1절). 4절에 ‘이 명령’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 데에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마음이 없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제사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참조: 1:6, 11, 12, 14)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주님께 드릴 때에 자기의 손으로 짐승의 머리를 누르면서 안수하였습니다.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레 1:4).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사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

1) ‘라헨’의 ‘리’를 ‘불이익의 라메드’로 보아서 “너희를 거슬러”로 옮겼다.

2) 직역하면 “그가 너희를 그것으로 들어올릴 것이다.” 일인칭 주어에서 삼인칭 주어로 바뀌는 것은 아마 내장 오물로 비유된 찢터미를 들어 올리는 비천한 일을 여호와께 돌리기를 꺼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앤드류 힐, 『말라기』 (앵커바ible; CLC, 2019), 350-351.

니다. 그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흠친 것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인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을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딤후 1:16)라고 평가합니다.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 2) 제사장의 복이 저주가 됨

1장 후반부를 보면, 제사장은 백성이 부정한 제물을 가져와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제사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이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주’ 라는 말을 세 번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명사형을, 그 다음은 미래형 동사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저주가 철저히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 가운데 저주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말로 설명됩니다.

둘째, 그들의 복에 저주를 ‘내리겠다’ 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른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sup>25</sup>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sup>26</sup>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제사장의 선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 6:27). 여호와께서는 바른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지금은 제사장들의 복에 저주를 내리셔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여호와와 이름’ 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복에 저주가 임했다’ 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장의 복에 저주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제사 행위는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 그들의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드러나야 할 것인데(시 128편) 그들의 일상생활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요약하면, 여호와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활동은 여호와와 복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오는 일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와 저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째, 그들의 후손을 꾸짖겠다고 하십니다. ‘후손’ 은 ‘종자’ 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종자라는 말은 농사의 씨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또 자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사장의 자식이 단절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서 그러한 예를 봅니다. 여호와와 이름의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던 홉니와 비느하스는 저주를 받아서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이가봇’ 이 되었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절기의 내장 오물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절기 때에 짐승을 잡아 좋은 부분은 태워서 드리고 가죽이나 똥[내장 오물]은 진 밖에 재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처리하였습니다(출 29:14; 레 4:11-12; 8:17; 16:27).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과 버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버려지는 부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개역한글 성경에서 ‘똥’ 으로 번역된 말은 체외로 배출된 똥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내장의 오물’ 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릴 때에 내장도 씻어서 드렸는데, 내장을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오물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때 내장의 오물을 잘못 취급하면 옷에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내장의 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고 하십니다. 실수로 얼굴에 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십니다. 오물을 얼굴에 바르면 그것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옷을 더럽게 할 것이고 그 양이 많으면 제사장은 더러운 것으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오물로 취급되어 재를 버리는 곳에 버려질 것이고 그곳에서 불태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영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특권을 얻은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 밖으로 던져지고 거기에서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이 부정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그렇게 대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봉사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수치스럽게 끊어지는 것, 이것이 제사장에게 보이시는 여호와와 저주의 내용입니다.

### 3) '나의 언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내장 오물처럼 되어서 버려진다는 경고가 실현될 것이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그러한 명령은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계속 있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sup>3)</sup> 제사장의 복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레위와 맺은 여호와와 언약이 계속 존속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 “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동등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그릇 행하여도 여호와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은 실패하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레위인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 2.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

- 5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내가 그에게 그것들을 준 것은 경외심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경외하였고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율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나와 함께 평화롭고 바르게 걸었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 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이기 때문이다.

### 1) 생명과 평화의 언약과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은 생명과 평화입니다.<sup>4)</sup> ‘생명’과 ‘평화’는 죄인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상태를 아름답게 표시합니다. 바른 제사를 드려서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는 화목제의 제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넉넉한 추수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생명과 평화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경외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 2) 진리의 율법과 많은 사람이 죄악에서 돌아섬

레위인의 입에는 진리의 율법이 있어서 불의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

3)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다(참조, 신 33:8-11; 느 13:29). 예레미야 33:21에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말하면서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윗과 세운 언약을 파하여 그의 왕위를 다스릴 아들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문맥에서 레위와 맺은 언약도 파기될 수 있다고 한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 깨어지면 레위 자손이 다시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예레미야 33장에서 사용되었다.

4) 여호와께서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약속하였다.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었다(민 25:13-14).

릴 수 없습니다. 레위인에 대하여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신 33:10). 레위인이 거주하는 마을 48개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백성에게 진리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한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화롭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사귄다는 더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과 맺은 언약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눈 일의 열매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흠친 것을 가져오거나 저는 것을 가져올 때에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그 길에서 떠나 있으면 그들에게는 힘과 권위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제물을 가져오는 백성과 타협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7절). 그가 진리를 담고 지식을 지키면 사람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그에게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와 사자’ (使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예언자뿐 아니라 제사장도 여호와와 사자로서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레위인과 “나의 언약” 을 맺고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와 그 언약이 계속 있게 하려고(2:4) 그들의 현재 잘못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 3. 레위의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8-9절)

- 8 그런데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이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더럽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9 그래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에서 치우침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화롭고 바르게 걸으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6절). 그런데 지금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와 길에서 떠났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8절). 6절에서 말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과 8절에서 말한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였다’ 는 것은 부정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드린 죄를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인 이익을 따르면서 부정한 제물을 드린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고 율법에 걸려서 넘어진 일이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께서는 레위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더럽혔다” 하고 선언하시면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에서 떠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9절에서 ‘율법에서 치우침을 보였다’ 는 말은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유력한 자가 부정한 예물을 가져오면 그냥 받아주고, 제물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율법에서 치우침을 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태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이 알 수 있게 그릇 행하였으므로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의 언약’ 을<sup>5)</sup>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망과 고통뿐이

5) 앞에서는 “레위와 맺은 언약”인데 여기에서는 “레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었습니다.

#### 4. 온전한 제사장인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태도

##### 1) 온전한 제사장인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흠친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이름과 영광,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뜻을 보여 주셨습니다.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계속 있게 하려고”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계속 있게 하려고” 징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데에서 충만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눅 21:1-4). 그리고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 2) 우리의 현실을 보는 다른 시각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은 우리의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제물을 가져왔고 제사장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그 책임을 지도자와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과 참된 경외함, 그리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언약이라는 용어로 그 당시 구약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언약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용어를 사용하여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칫하면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데 주님께서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이 부정한 제물을 가져온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백성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책망하기도 하셨지만(1:13-14), 2장에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는 제사장들을 지목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sup>6)</sup>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교인들과 직분자들이 서로 대립하여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직분자인 제사장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백성보다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구약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직분자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제사를 행한 일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

6) 레위 사람을 택하신 것과 교회에서 목사를 택하는 일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민수기 18:5에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는 구절은 에베소서 4:8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된다.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사로잡으신 것은 교회에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을 이루셨으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들은 교인들보다 먼저 책망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생명과 영광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문을 닫아야 마땅했던 구약의 교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직분자들이 먼저 이러한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과 영광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응답송: 시편 51편 1-2, 6-7절